깊게 흔들 만큼 우리에게

4월 3주, 2일차 | 요한 15:1-17, 요한 21:15-17

연속적인 요구 대화 모임

기억 본문

"이제 너희 말미암아 내가 말한 바 말씀이 벌써 깨끗하니라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요한 15:3) 그러므로 이제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요한 15:1-17)

"Now all these things happened unto them for examples: and they are written for our admonition, upon whom the ends of the world are come. Wherefore let him that thinketh he standeth take heed lest he fall. (고전 10:11) ~ 1Corinthians 10:11, 12

불멸의 인자 이신 예수님께 직접적인 주의를 집중하고, 도덕적 사회에 행동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현대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성경 전체 기억 문장에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 말미암아 벌써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되었지만, 이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요한 15:7) 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제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뒤따랐다.

이것은 제자 공동체 내에서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숨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 이해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이해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

"또 내가 보니 흰 돌 하나가 그 작은 기둥의 위에 있는데 그 돌 위에 일곱 개의 눈이 있는데 이것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일곱 영이니라" (계 5:6).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일곱 개의 등불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의 성령"(엡 4:4)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 11:2-3에 "주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리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성령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성령이 여러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이다. 사 11:2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리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 일곱 영은 하나의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 여호와 ... 성령을 통하지는 않는 ... 옳지 않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 가운데 있는 일곱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 11:2, 계 5:6.

공정한 모든 기경은 하나의 전체이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그분의 신성한 지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정하기 위해 다니엘서 2장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의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그것을 알아서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